

# 폭력에 짓밟힌 종교화합

## 7대 종교계 참가 '종교문화축제' 행사중 북핵반대 불법 시위대, 무대 올라 난동



종교화합의 상징인 '종교문화축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에서 네번째)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이웃종교 의식복을 번갈아 입어보며 우의를 다졌다.

10월 21일 서울광장에서 7대 종교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대한민국의종교문화축제가 열렸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지관, 이하 종지협) 주관해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종교문화축제는 종교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축제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눔과 기부'를 주제로 잘 치러지던 축제는 마지막 프로그램인 무지개콘서트 도중 중단되고 말았다.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북핵 반대·한미연합사 해

공동대표를 지낸 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창규 목사와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 대전 만불선원 회주 진철 스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집회 식순에 묵도, 찬송, 기도, 축도 등이 포함된 것도 개신교 교회측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화합과 화해의 상징인 종교문화축제가 종교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셈이다.

이 불법집회에는 강제집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창규 목사는 종교문화축제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희망 나눔을 위한 종교사회 지도자 기증품 전시회'에 소장품을 기증하기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교문화축제에 참석해 종교화합의 행사를 축하해준다고, 이 행사를 방해한 서울시장의 불법집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종교간 갈등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종지협은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측의 사과방문과 치료비 부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측 서경석 목사는 사과는 커녕 불법집회가 아닌 종교집회였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지협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업무방해, 불법집회, 폭행 등을 처리할 것을 검토 중이다. **박봉영 기자**

## 남북불교교류 상징 신계사 19일 낙성식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진행해 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11월 19일 마무리된다. 2004년 복원에 합의하고 복원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한 지 2년만의 일이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1월 19일 신계사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 자리에는 남북불교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해 남북불교 교류의 결실을 거둔다.

신계사는 2004년 대웅보전 복원을 시작으로 2005년 만세루와 요사채, 산신각이 복원됐다. 또 붕괴 위험에 있던 신계사 삼층석탑이 해체, 보수됐다. 올해에는 극락전을 비롯해 축성전, 칠성각, 종각, 나한전, 어실각 등 7개동의 전각이 지어져 옛 모습을 되찾았다.

낙성식 참가를 위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관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명진 스님 등 300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대표단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600년 전 팔만대장경 이문식 인사동서 재현



600년전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해인사로 이운되었을까?

합천 팔만대장경축제준비위원회는 '합천팔만대장경 축제(10월 27일~30일)'를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0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팔만대장경을 해인사로 모시는 의식 재현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문무백관과 호위 무사로 변장한 합천 군민과 해인사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거나(장대) 지게, 소탑구지 등을 이용해 서울에서 해인사로 대장경을 옮기던 장면을 연출했다. **김주일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관 스님 예방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2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에 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이라며 축하했다. 반 총장은 "전 국민 특히 불자들의 기도와 마음을 얻어 큰 자리에 오른 것 같다"며 "불교계의 관심과 아낌없는 질책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10·27법난 26년... 명예회복 언제?

### 진상규명위 성명서 발표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국의 사찰에 난입해 스님들을 무차별 폭행·연행하고, 모진 고문과 폭력을 행사했다. 바로 26년전의 일이다.

10·27법난 26주년을 맞아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10·27법난 진상규명위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10·27법난 진상규명위는 성명서에서 "10·27법난은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

군부세력이 자신들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만행을 호도하기 위해 한국 불교를 전면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며, 또한 자주적 민주적 종단운동을 원천적으로 파괴한 불교탄압사건"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10·27법난 진상규명위는 또 교과서에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만행 가운데 한국불교계에 대한 야만적 만행을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9월부터 10·27법난의 진상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봉영 기자**

## 동국대 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 역분화기술 보유 (주)임젠과 산학협력

동국대가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동국대는 (주)임젠과 산학협력 공동연구기관 구축사업 일환으로 임젠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역분화 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은행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10월 25일 체결했다.

동국대의 임젠과의 연구기관 구축을 위해 일산분교병원에 줄기세포은행(stem cell bank)을 설립하고, 의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바이오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산분

교병원 인근을 일산메디칼러스터로 조성해 동북아 줄기세포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임젠은 역분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 환자 체세포를 직접 줄기세포로 제조해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동국대 홍기삼 총장, 일산분교병원 이석현 원장, 임젠 김기동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 자원봉사연대 발족 '초임기'

긴급재난구조활동이나 일반 봉사활동 시에 대형 복지법 및 전국 사찰의 불교자원봉사자들을 긴밀히 연결해 불교자원봉사연대가 꾸려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11월 4일 개최하는 불교사회복지대회 개막식에서 '불교자원봉사연대' 발족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여하는 70여개의 복지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봉사연대 활동 등의 서를 접수받는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찰자원봉사를 수료한 30여개 사찰과 신행단체 수료자 1200여 명에게도 연대 참여를 권하고 있다. 연대까지 약 100여개 기관이 연대하는 불교자원봉사연대를 꾸리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각 복지법인, 사찰, 자원봉사단체, NGO,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연대가 꾸려지면, 국내의 재난구조 활동시 연대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불자 자원봉사자 간의 유대와 결속력도 증대될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대를 통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 인구 파악, 봉사분야, 봉사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 KCRP 20주년 기념식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KCRP) 총회를 계기로 종교간 대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 설립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KCRP(회장 백도용)는 10월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KCRP 20년사> 발간식을 열었다.

KCRP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계 수장, 김명근 문화관광부 장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KCRP는故 강원용 목사,故 김홍은 신부,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 최창규 前 성곡관장 등이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7대 종교의 화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2004년부터 백도용 목사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 “강남 거점 사찰 포교전략 시급”

### 봉은사 세미나, 특화 프로그램·일요법회 필요성 지적

서울 강남 지역의 불자인구가 타 종교 인구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는 물론이고 비슷한 정도의 시설수를 보유하고 있는 가톨릭에 비해서도 신자 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 거점사찰의 포교 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중앙승가대 김용현 교수가 10월 24일 봉은사 개신1212주년 기념세미나 '한국불교의 현황과 도심 포교-봉은사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김용현 교수의 발제문 '통계를 통해 본 강남 지역의 포교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강남지역 종교인구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2005년도 기준)의 53.1%로 서울 전체의 종교인구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개신교 비율은 강동구 25.4%, 서초구 24.9%, 송파구 23.8%, 강남구 23.5% 등이며 가톨릭 비율은 서초구 21.1% 강남구 20.7% 송파구 16.4% 강동구 14.8% 인 반면, 불교 인구는 송파구 16.2% 강동구 15.9% 서초구 15.3% 강남구 15.2%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수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봉은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관내 종교

시설 중 개신교 교회는 322개에 이지만 사찰은 20개만 있을 뿐이다.

김 교수는 "강남에 각 종교단체에 종교부지가 불하되면서 종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불교계는 이 지역에 충분한 재원 및 종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포교경쟁에서 뒤처졌다"며 "이 외에도 원력과 지혜를 갖춘 포교사가 없고, 중산층 이상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남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일요법회를 적극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강남의 대형사찰들은 영향력이 적은 지역에 포교당을 설립하고 △도심포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역 문화센터 및 도서관 등 신행과 포교의 중심이 될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 중앙승가대학교 2006년도 총동문회 임시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각처에서 수행정진과 포교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문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는 11월 6일(월) 회칙 제7장 2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모교발전을 위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 불기 2550(06)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봉은사 <법왕루>

**안 건** 1)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모색의 건  
2) 기타의 건

※ 기타 문의사항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922-7881, 929-7110 / Fax 02)929-6919  
홈페이지 : http://ob.sangha.ac.kr/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長 退宇正念 合掌